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96년도 24시간 연속기도회 실시

2월 21일(수) 정오부터 4월 21일(주일) 정오까지 60일간

교구별로 교구일꾼 및 전도회 임원

교회에서는 교구위원회 주축로 당회장 청빙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24시간 연속기도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10월에 갑작스런 당회장 목사의 사임으로 공석중인 당회장 청빙을 위해서 그동안 교회에서는 당회와 교역자회, 권사회 및 각 부서에서와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왔다.

이에 교회에서는 한번 더 총력을 다해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96년도 24시간 연속기도회를 실시한다. 이 연속기도회에 참가하는 대상은 각 교구일꾼 및 전도회 임원, 그리고 자원하는 성도들이다. 다만 권사는 연속기도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제외된다. 24시간 연속기도회의 교구별 시간표와 기도제목은 아래와 같다.

- 일시 / 1996. 2. 21(수) 정오 ~ 1996. 4. 21(주일) 정오
- 기간 / 60일간
- 장소 / 24시간 연속기도회실(나사렛홀 입구)
- 방법 / 개인당 1시간
제1교구부터 제11교구까지 각 5일간
제12교구 3일간, 제13교구 2일간
- 교구별 실시 /
제1교구 2.21(수, 낮12) ~ 2.26(월, 낮12)
제2교구 2.26(월, 낮12) ~ 3.02(토, 낮12)
제3교구 3.02(토, 낮12) ~ 3.07(목, 낮12)
제4교구 3.07(목, 낮12) ~ 3.12(화, 낮12)
제5교구 3.12(화, 낮12) ~ 3.17(주일, 낮12)
제6교구 3.17(주일, 낮12) ~ 3.22(금, 낮12)
제7교구 3.22(금, 낮12) ~ 3.27(수, 낮12)
제8교구 3.27(수, 낮12) ~ 4.01(월, 낮12)

- 제9교구 4.01(월, 낮12) ~ 4.06(토, 낮12)
- 제10교구 4.06(토, 낮12) ~ 4.11(목, 낮12)
- 제11교구 4.11(목, 낮12) ~ 4.16(화, 낮12)
- 제12교구 4.16(화, 낮12) ~ 4.19(금, 낮12)
- 제13교구 4.19(금, 낮12) ~ 4.21(주일, 낮12)

교역자, 지휘자 인사 여부감 교체

교회는 2월 1일부로 봉사위원회 지도에 이홍성 목사(제5교구 지도)를 임명했다. 또한 청년부 지도인 김정우 목사가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독일 튀빙겐에 있는 뢰켈하우스에서 학문을 연구하게 된 관계로 3개월간 임시로 심상범 목사(현 총신대학교 신대원 신약학 교수)가 청년2부를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교회는 예배다부 여부감으로 있던 박원석 권사를 개인사정에 따라 면하고 지난 1월 31일부로 강석관 권사를 임명했다.

또한 가브리엘찬양대 지휘자로 조신욱 집사, 서온찬양대 지휘자로 이진우 선생, 크로마하트 말들린 지휘자로 이승순 집사를 임명했다.

'96 중헌청지기훈련 추가 실시

2월 14일 수요일, II부 예배사에

'96년도 연속기도회 기도제목

지금까지 우리교회와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이레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연속기도회를 열어 주시고 참새처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 한 시간 동안 기도를 잘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1. 참된 예배, 신령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 예배 시작 10분전에 도착,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2)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중헌과 재래의 친절로 수종들게 하옵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회중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담임목사님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1)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희생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선봉장이 되며 양무리를 잘 인도하실 목사님을 보내어 주옵소서.

(3) 우리가 담임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는 더욱 목자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을 보내어 주옵소서.

3. 우리교회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 대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

가 되고, 교회와 민족을 짊어질 천국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1)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찬양과 섬김과 봉사로 자라게 하옵소서.

(2) 중헌의 모든 일꾼들(직분자, 교구일꾼, 전도회원, 교사, 찬양대, 안내위원, 차량위원, 양육위원, 교회직원)에게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갈 같은 새 힘을 주옵시고 순간마다 함께하옵소서.

(3) 원로목사님에게 영력을 7배나 더하시며 성령, 말씀, 기도충만으로 중헌의 양무리를 푸른 초장과 울창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4) 모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함께하사 27개 교구와 26개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5) 교구마다 구역예배가 활성화되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며, 가정마다 인가귀도되는 축복을 주옵시고, 교사양성부를 통해 계속적으로 성숙한 교사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4. 중헌의 식구들마다 한 사람 이삭씩 전도하여 이 민족을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1) 전도회마다 영혼구원의 열정과 성령충만함을 더하시어 모든 전도회원들이 사 람사는 일등예수가 되게 하옵소서.

(2) 모든 성도들이 태진자를 기도로 열매하여 믿음으로 해산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5. 5대장 6대주에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1)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서만수, 육호기, 이준교, 김주경, 안석렬, 김은태, 김영대 선교사/ 김원호 협력선교사/ 유병세,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평신도선교사)

(2) 선교사들을 더욱 많이 파송할 수 있도록

복 은혜를 주옵시고 모든 미전도종족을 향해 나아가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하면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시며, 선교위원회와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축복하옵소서.

6.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 구제 갈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3) 노인을 공경하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7.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이 점점 많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중헌의 가족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1) 등록된 새가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 천국의 합창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헌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2) 양육위원들이 불타는 소명의식과 성령충만으로 새가족을 기쁨으로 잘 돕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8. 우리 중헌의 찬양대가 하늘나라 찬양대처럼 되게 하옵소서.

(1) 모든 찬양대마다 열정이 있는 찬양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듣는 이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2) 찬양대양성부를 통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숙하고 부흥하는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9. 기도개 불처럼 타오르고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 우리 중헌기도원 되게 하옵소서.

(1) 기도원에 새 성전을 건축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2) 영육간의 질병이 치료되며, 귀신의 세력이 물러가는 치유와 새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기도원이 되며, 지치고 상한 영혼마다 회복되는 잠원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10. 제2교육관 공사가 잘 진행되어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11. 열심히 모이는 우리 중헌교회에 되게 하옵소서.

(1) 주일 낮 예배와 찬양예배와 수요일기도회와 금요일회와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모이게 하옵소서.

(2) 889구역마다 열심히 심방하고 구역에 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3)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보의 성경통신강좌에 참여하고 주간 성경공부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12. 병상에 있는 모든 환자들의 영육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마음껏 봉사하며 섬기는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13. 해외의 지방으로 출타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목적을 이루게 하옵시고 군대에 나간 아들들에게 믿음과 건강을 주옵소서.

14.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1) 김영삼 대통령에게 다윗 같은 믿음과 솔로몬 같은 지혜와 모세 같은 말과 행사의 능력을 주옵시고, 손명순 권사에게 에스더 같은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2) 전쟁없고 내란없고 부정부패 처물 없고, 우상숭배 없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3) 복음의 나라, 정직 절실 양보의 나라, 골고루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4) 자유 민주 복음으로 통일되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를 위해 기도, 구제, 선교하는 나라 삼아 주옵소서.

15. 4월 11일 있을 총선을 통해 이 민족이 정말 필요로 하는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옵시고, 당선된 후에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며 하나님께와 조국과 국민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16.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권면하시 속히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남한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도 평화통일을 잘 준비하게 하옵시며, 성도들이 출산수행하여 기도와 물질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동안 이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기도하실 성도님에게도 함께하옵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극악한 세대의 성도의 태도

(시 12:1-8)

본 시편은 지극히 악독한 세대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옳으냐 하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기록 당시의 환경은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인 줄로 압니다. 다윗 장군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십 황무지에 숨었는데 십 황무지에 사는 사람들은 의로운 다윗을 돌보아 주지는 못할망정 자기들이 가장 충신인 것처럼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이제 땅 위에 발붙일 데가 없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나는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부르짖는 기도로 시편 12편이 기록 됩니다. '이 못된 것들!' 하고 칼을 뽑아서 모조리 목을 베어버릴 마음도 인간적으로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십 황무지 사람들도, 사울 왕도 저주하지 않고 눈을 흘리면서 시편 12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1)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12:1)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을 연습해야 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금생과 내생에 아울러 복이 됩니다. 그런데 경건이란 첫째, 하나님만 믿는 마음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둘째, 경건이란 하나님만 무시워 하는 마음입니다. 셋째, 경건은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과수보는 것입니다. 넷째, 경건은 환난 날에 악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환난 날에 어려움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배요, 경건한 사람은 나라의 기둥이요, 경건한 사람은 민족의 등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경건한 자가 하나 둘 자꾸 없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은 다 경건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충실한 자가 없어집니다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12:1)라고 했습니다. 벼이삭이 벼줄기에 달렸는데 꼭대기만 있는 이삭도 달려 있고, 알맹이가 한 7부쯤 들어간 이삭도 달려 있고, 가득하게 100% 채워진 알맹이도 있습니다. 벼줄기에 달려 있기를 꼭같이 달려 있지만 가을날이 오면 골라놓는 날이 옵니다. 벼줄기에 달려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충실한 열매,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알맹이라는 말은 말과 행동이 믿을 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충실한 자가 점점 줄어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한국은 이렇게 되면 안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건한 신자가 많아지고

충실한 애국자가 끊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 행악자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1) 말로 범죄합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12:2-4)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사람이 일어나면서부터 자는 때까지 제일 말쑥꾸러기가 헛바닥입니다. 말로 범죄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말로 범죄하는데 세 가지 말로 범죄합니다. 첫째,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12:2)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침하는 입술입니다. "아침하는 입술과" (12:2)라고 했습니다. '아침하는 말'은 '미끄러운 말'이라는 말인데 쉽게 말하면 아무데도 걸리지 않고 술술 미끄러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권세있는 사람에게 알랑거리는 말입니다. 셋째, 두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12:2)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말은 안과 밖,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갓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이 붉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목을 쏙 안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추는 구밀복검이라, 입에는 꿀이 떨어지고 배에는 칼을 찌르는구나! 이것이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짓, 아침, 두 마음, 이 세 가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2) 말로 범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침하는 입술과 조롱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12:3)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로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온다는 것을 알면 안하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둘째,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12:4)라고 했습니다. "내 입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을 누가 제한하겠느냐? 나는 세력자이다. 내가 '아무게 죽여!' 하면 누구라도 잡아죽일 수 있지. 절대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 내가 절대 권세자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꼭차서 거짓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우리 한국에는 이런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은 매를 맞아 죽을지 언정 마음에는 누구도 끌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일곱 번 연단한 은보다도 더 확실해서 털끝만치 거짓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1) 영화롭게 하는 약속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가련한 자의 놀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오다" (12:5)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놀리우고 궁핍한 어려움에서 끄집어내서 안전지대에, 많은 사람이 구경하는 곳에 세워주겠다 하십니다.

세력없는 자, 지식없는 자, 몸에 병든 자,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는 자가 가련한 자입니다. 돈이 없는 자가 궁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 돈없는 사람을 돌아보아 주시는데, 가련한 자, 궁핍한 자란 바로 살기 위하여, 믿음 지키기 위하여 꺾박받고 가련해지고 궁핍해진 자를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범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도 회개만 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을 특별히 돌아보아 주십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죄를 범하자고 할 때에 죄를 범하지 않다가 감옥에 갇히어 가련하고 궁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감옥에서 요세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요셉의 10년 노예생활, 3년 감옥생활은 풀무로 연단 받은 정금을 만드는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궁핍해지고 가련해진 사람을 반드시 끄집어 내어 수많은 사람 앞에, 넓은 안전지대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쫓기어 다니지만, 십 황무지 사람들이 나를 임금에게 고발을 했지만 나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축복기도해 주시기를 너는 커서 임금님이 된다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임금님 자리에 올라앉는 날이 올터인데 그때까지만 참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변 하시니 그 나라 가지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은 순결함이며 흠도가 나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12:6)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불변성을 말

합니다. 은은 두 번만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도 가짜가 섞이는 법이 없이 깨끗해 집니다. 그런데 일곱 번이나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으니 거기에 가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곱 번 연단한 은보다 더 순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몸은 괴로워서 눈물이 나와도 마음은 기쁨으로 약속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죄없이 옷이 찢기우고 천덕꾸러기처럼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미하는데 그 찬미소리를 옥중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겉사람은 매를 맞아 죽을지언정 마음에는 누구도 끌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일곱 번 연단한 은보다도 더 확실해서 털끝만치 거짓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전하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내가 지금 십 황무지에 숨어있는데 이 십 황무지 사람들이 기브아까지 가서 사울 임금님에게 고발했구나. 이제 사울 임금님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오겠는데 암만 해봐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나는 그 품안에 숨어 있다! 다윗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그의 입에는 찬송이 나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12:8)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인생 중에 천대받고, 오히려 비루한 인생들, 모리배, 깡패들이 행세하는 세상, 악한 사람들이 밤낮없이 마음대로 다녀도 '너 어디 가느냐' 묻는 사람이 없는 이런 험한 세상이지만 나는 하나님 품안에 있어 담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십 황무지에서 고발을 당하고 분한 마음을 품지 않고, 낙심하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이렇게 훌륭한 시를 쓸 수 있으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임금되게 하시고 천추에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경건한 참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무시워 하고, 자신을 과수하고, 악자를 환난중에 돌보는 경건한 믿음을 가집시다.

◀ 설을 맞으며 ▶



명절에 담긴 조상들의 깊은 마음의 유산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정 광 옥

(목사, 제10교구, 장년1부 지도)

추석과 아울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한주 남짓 남겨 놓고 있다. 추석은 풍요롭게 익어가는 들녘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지내는 명절인 반면 설은 새해를 시작하는 벽두에 서서 앞으로의 일을 기원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맞는 명절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듯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민족의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신앙인인 우리는 감사와 기대의 마음보다 제사의 문제에 걸려혹시 이번 명절에도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 섞인 마음을 가질 때가 더 많다. 혹은 이제 신앙의 뿌리가 깊어진 가정에서는 제사 자체가 생소하게 되어버렸지만 명절을 맞을 때 과연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낼 것인가 어정쩡한 경우도 많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인 우리는 이 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

설은 묵은 해를 떨쳐 버리고 새로 맞이하는 한해의 첫날이며 첫머리이며, 설이라는 말은 '설다' 혹은 '낯설다' 등의 설과 어근을 같이하고 있는 듯하다. 즉 이 말은 새해에 대한 낯설음, 새해라는 익숙하지 못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첫날이기 때문에 '설다'는 의미로 설은 날로 생각된다. 이 날은 묵은 해에서 분리되어 새

해에 통합되어 가는 전이과정으로서 새해에 통합되기에는 익숙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이날을 신일(愼日), 즉 삼가하고 조심하는 날이라 하였다. 새해라는 시간 질서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고, 삼가고 조심함으로써 순조롭게 새해에 통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일찍부터 태양력보다 태음력을 사용한 우리 조상들은 달의 기울기를 기준해서 설과 대보름을 명절로 지켰다. 정월 초하루는 달이 극도로 이지러진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묵은 해와 작별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전환점이므로 전이기(轉移期)에 해당된다. 그래서 새로운 질서와 상황에 순조롭게 통합되려면 삼가 조심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의식들이 생겨난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천여년 전부터 중국에서 사용된 태음력의 영향으로 동지가 명절에 유입되었다.

동지는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태양의 힘이 가장 약화된 날이며, 그 다음날부터 낮이 점차로 길어지면서 태양의 힘이 차츰 왕성하여짐으로 동지가 1년의 출발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동지를 작은 설로 지내면서 동지에서 시작하여 설, 상심이치일로 연결되는 대보름까지 정초의 설 명절이 고정되고

동지에 죽었던 태양이 설에 소생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과거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였으므로 이 기간동안에 새해의 풍요를 기원하고 예측하는 갖가지 축원 의례를 가졌다. 이 놀이 가운데는 풍년을 기원하며 농신(農神) 혹은 곡신(穀神)의 강림 내방을 가장한 가장놀이들과 새해의 풍년을 점치는 편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윷놀이나 차전놀이는 후자에 포함되는 놀이들이다. 또 이 계절이 농한기이므로 객지에 살던 일가 친척들까지도 포함한 온가족이 모여 어른에게 새배를 하고 조상에게 차례를 올렸으며 설에는 떡국을, 보름에는 오곡밥을 먹었다.

우리 조상들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할 때 그 마음에는 새로운 한 해가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지만 농사를 주관한다고 생각되는 농신 혹은 곡신에게 또 자식들에게 대한 지극히 사랑한 사랑으로 후손들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조상신에게 말하면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초를 보내며 또 주변에서 온택을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도 정성을 전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창조주를 잘 알지 못하여도 절기를 정해 놓고 기원의 정성과 감

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무언지 모르지만 기원과 감사의 대상을 찾아 헤매면서까지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하였으며, 이제 명절들을 통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 새로운 시간을 누가 주장하시는지, 결실의 계절을 맞을 때마다 이 풍요를 누가 주셨는지 잘 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속에는

참된 겸손과 감사가 없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앞에 놓인 새로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힘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연휴를 맞아 즐거움을 쫓아 놀기에 바쁜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따라서 우리는 설과 같은 명절들을 맞을 때마다 그 속에 담긴 미신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무시하거나 멀리하기보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릇된 산들을 섬겼던 조상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나아가 그 명절에 담긴 조상들의 깊은 마음의 유산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95년 5월에 아들 이승근 목사가 뉴욕에서 개척한 만나교회 설립 10주년에 자체 교회건물을 구입하고 너무 기뻐하며 서울의 친구 목사들이 시무하는 교회에 와서 부흥회 인도하고 돌아왔는데, 피곤하고 기침이 많이 나서 진찰을 받은 후 결과가 7월에 나왔는데 '폐암'으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체험할 때가 되었나봐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지금 미국에서 노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이라 노회 산하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매주 모여 기도하고 있고, 만나교인들은 매일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10일간 금식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우리 충현교회 금요집회 때에도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교역자들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11월말 절대관찮으니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는 모습, "건강해서 한국에 가서 뵈올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오셨으니 어머니 음식습씨를 맛있게 되었네요" 의약이 쓸데없다고 하니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그때부터는 매일 가정부흥집회를 시작하여 예배를 열심으로,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던중 12월 19일 낮에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한 번 더 드리면 좋겠어요." 하길래 그러자고 하고 저녁후에 또 예배드리고 한참 있다가 "또 예배드립니다. 계속 드려 주세요" 그래서 밤새 계속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는데 본인의 기도차례에 "하나님, 이제라도 기적을 베풀어주세요"

푸시면 오는 주일에 설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안나가면 새신자들이 왔다가 떨어집니다." 이 기도를 드린 후 얼마 못되어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두 번 하더니 그만 사르르 아내의 옆에서 어머니 팔에 안기어 눈을 감으니, 이제 하나



정검다리

하나님의 절대주권

구 명 신

(명예전도사)

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하는 시간인 줄만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가도 돌아오지 않고 지금 까지도 오지 않았습다.

나는 이성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정욕으로 내 아들 살려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다. 하나님의 일,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였고, 또 수많은 기도자들이 실망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 기도한 줄 아십니까?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품부림을 쳤습니다.

그 몸에 흠을 닦을 때는 정말 가슴이 터지는 듯하여 나는 외쳤습다. "제가 나를 덮어줘야지. 이제 뭐야?"

한동안 멍하니 넋을 잃고 있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다. 지금까

지 내가 기도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또는 얼마후에, 때로는 더 오랜 후에라도 이뤄 주셨는데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실 것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99번의 기도는 들어주셔도 마지막 한번은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새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절대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라" 누가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는 다섯 주일을 설교 못하고 잠습다. 그가 섬기던 만나교회 교인들이 그 각 가고단 첫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와 "목사님 기적 때에 저녁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출석 잘하겠습니다." 눈물로 회개와 결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1월 28일 주

일에 '열매맺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떠나왔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이승근 목사가 병 낫기 위해 시작했던 기도모임이 이 목사가 주고 간 선물인 줄 알고 계속 기도하되 새로 오실 목사님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계속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저도 이승근 목사 위해 기도해 주시던 모든 분들과 만나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하고 왔습다. 지금 그 약속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면으로 감사드리하는 것은 그동안 기도와 기타 여러 면으로 애써 주신 원로목사님과 당회원들 그리고 교역자들과 성도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래의 글로 저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여수룬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이승근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따뜻한 부모사랑 독자적하고 깨끗한 신앙생활 전수하더니 철저한 보수신앙 바로 전하다 엄마팔에 안기어 긴 잠을 재려 천사의 팔에 들려 천국으로 이사하니 환영 나온 예수님 할렐루야 영접하세

부럽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며 어찌하랴 그대는 그리 빨리 익었는가 나는 나는 그대보다 햇수는 많았으나 야적도 덜 익은 부름에 많대 하나님께 바구파에 못 들어갔는데 어느새 그대는 그대 완숙되어 화약 전에 취함받은 의인들의 반열에 섰으니 아 부럽도다 하나님의 종 이승근 목사여 이제는 공해도 없고 숨찬 것도 없으리 할렐루야!

토막소식

◆ 초등2부의 성경이야기대회가 3월 17일에 있어 학생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여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 고등부는 학생회, 찬양대, 소그룹 전원이 참석하는 소그룹 기도회를 매주일 12시 15분에서 1시 30분까지 아멘홀에서 모이고 있다. 해당하는 학생들은 참석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승리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청년2부는 3월 4일 ~ 5일에 계절학교를 준비하고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제자도와 청지기직'이라는 제목으로 모이며 강사는 김정진 목사이다.

◆ 새가정부는 2월 10일(토), 계절학교를 실시했다. 18:00~18:20 찬양, 18:20~19:20 예배, 19:20~21:00 공동체 훈련, 21:00~21:30 기도회로 모였다.

◆ 장년1부는 40~49세까지의 전 교인을 대상으로 매주일 낮 12:30~1:30에 교육관 407호에서 정광욱 목사의 지도로 성경공부를 한다. 강의 내용은 ① 현대인의 삶 속에서 본 성경 ②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육성 ③ 말씀을 통한 삶의 문제

들 해결 ④ 찬양, 말씀, 기도, 친교생활 등으로 말씀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예배다부는 매주일 오후 3시~4시 30분에 교육관 109호에서 교사훈련을 실시한다. 오늘(2.11)과 2월 18일 주일에 박인기 집사의 특강이 있다.

◆ 새가족부는 오늘(2.11) 찬송가부르기대회를 개최한다. 지정곡은 231, 178, 363, 402장 중에서 1곡을 선택하고, 자유곡은 처벌로 선곡해서 실시한다.

◆ 본 교회 임기제 집사는 기아 프레지오(Pregio) 12인승을 지난 2월 8일 전도위원회에 기증했다. 이 차는 전도위원회 산하 각 직능전도부에서 여러가지 용도로 유익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다.

(아래 사진은 봉고차를 기증받고 전도위원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는 감창인 원로목사)



'96 충현실업인전도회

'영적 각성을 위한 성회' 은혜중에 마쳐 말씀 테이프 무료 배포중

지난 2월 1일 경기도 광주군에 소재한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충현실업인 전도회(회장 임무천 장로)는 김동호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영적 각성을 위한 성회'를 은혜중에 마쳤다.

이날 집회에는 추운 겨울날씨와 빙판의 도로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로들을 위시하여 200여명의 회원들과 성도들이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신앙인으로서의 실업인의 자세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새롭게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다.

모든 참석자와 회원들이 앞으로 교회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봉사와 충성을 하고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데 힘쓰자고 다짐, 짧은 시간을 아쉬워하며 마쳤다.

한편 실업인전도회에서는 그날의 말씀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 말씀을 녹음한 테이프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원하는 성도들은 충현실업인 전도회 사무실(교육관 112호 교환 448번)로 연락하면 된다.



은혜가운데 마친 기쁜 수련회

김 지 희
(중등3부 부회장)

할렐루야!

먼저 수련회를 은혜가운데 마치고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

회는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했었다. 왜냐하면, 일정표를 미리 보았는데, 예전에 본 적이 없는 지루한 프로그램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는 내게 있어서나 다른 친구들에게 있어서 아주 뜻깊은 수련회라고 생각한다. 가장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경읽기 시간이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맨 처음에는 일정표를 보고 무척이나 지루할 것이라

세계선교의 꿈을 키우는 '영어교육부' 영어예배부 겨울성경학교 3월 1일 가나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Grow in the Knowledge of the Lord)라는 주제로(골 1:10) 이송림 목사의 설교 아래 영어교육부 초등부에서는 진급식(Promotion Ceremony)을 1월 28일 봉사관 2층에서 가졌다.

Alice Lavina의 사회로 유치부에서 5, 6학년 학생까지 작은 꼬마 손에 꽃불을 들고, 온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닮게 해주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열심히 배우며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다짐했다. 8년 전 '88 올림픽을 계기로 출발된 영어예배에는 현재 성인들이 매주 200여명씩 예배드리고 있다. 또한 영어교육부에는 유치부에서 5, 6학년까지 60여명의 학생이 있고, 중·고등부에 35명, 대학·청년부(Young Adult Group)에는 35명, 성인반(Adult

Group)에는 30명 정도의 미국, 네덜란드, 일본, 네팔, 필리핀, 호주 등 다양한 나라로부터 온 성도들이 봉사관에서 매주일 10:30~12:00까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

특히 선교의 꿈을 키우며 주님의 말씀을 영어로 배우고자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영어교육부는 초등부에는 Alice Lavina(Superintendent)의 면접(Interview)후에 오는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중·고등부, 성인반에서도 2중 언어반(Bilingual Class)을 따로 개설,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3월 1일에는 겨울성경학교가 봉사관 가나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릴 예정이다. 선교의 비전이 있는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 겨울수련회를 마치고 ▶

고 생각했는데 같은 반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교독하며 사복음서를 다 읽었더니 참말로 형용할 수 없게 좋았다.

그리고 수련회 때 우리 이홍성 목사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셨다. 그런데도 우리가 시간에 쫓겨 성경을 다 못 읽었을 때 같이 읽어주시고,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을 때 너무나 감사했다. 또 이번에도 예년보다 적게 참가했지만, 너무 감사한 것이 있다. 그것은 첫째날 친구들이

적게 와서 걱정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드렸었다. "하나님 친구들이 많이 참가하여 다 같이 은혜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둘째날은 더욱 많은 친구들이 참가하였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쳐서 기쁜 수련회였다. 그리고 성경읽기 프로그램을 다음 여름수련회에도 하였으면 한다.

"다음 여름수련회때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기대해 본다.